

42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19.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이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엘 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나와있죠

자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닛나라고 하는 두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한나는 그 브닛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을 한나는 젖을 떼 때까지 키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삼 해 정도까지 이 젖을 먹었습니다.

그니까 사무엘도 그 이후에 이제 엘리에게 맡겨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라고 나와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이상은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 사무엘상 2장 12절 내용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행해야 할 그 아들들은 불량자로 자랐던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또 심지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그랬죠,

이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만이 어두운게 아니고, 또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

워져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그의 아들들마저도 그러한 죄가운데 타락한 불량한 자로서 자라가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영적이인 그런 암흑의 시기. 그리고 3장 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아침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얘깁니다

이 성소의 등불은 매일 저녁에 켜고 그리고 이제 새벽, 아침 나절이 되면 이제 그 등불을 끄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던 겁니다.

바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 성소를 밝히게끔 등불을 계속 켜놔던 거죠

그니까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이인, 암흑의 시기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3장 4절 말씀.

4.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이러한 영적이인 암흑시기에 바로 이 어린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실한 모습 가운데 봉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비록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자다가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때 이제 비로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올바른 대답을 하게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몰락과 그리고 이후의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이상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광야 생활 후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아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바울사도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바울사도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기록이 되었죠

바울사도도 본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인쇄물에 로마서 1장 6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

나눔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인생물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짐으로 지친 우리들을 주님의 ,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아갔을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레위족속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8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선택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이라고 되었죠

우리를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일

을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 1.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 2.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자 부르심을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생활이 무엇이나,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는 구원을 얻음으로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우리의 육체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 안에
서 서로 종노릇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어디로 가야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바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1.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위엣 것을 찾고,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위엣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

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사무엘은 우상을 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무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이제 그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죠.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 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해야 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20절 말씀을 다시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